

데스크 시각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한흥구 성공회대 교수가 집필한 '사법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80년대 공안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나 방청객들이 던진 신발이 법대를 향해 날아가고, 야유와 아우성과 구호가 터져 나오던 난장판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공소장의 오자까지 베긴 판결문 위에 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판사들은 제 이름 석자를 버섯이 적기도 했다. 이 사회에 만연한 사법부 불신의 기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법부의 변화에 흔쾌히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의 교훈

옛그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씨는 2000년 안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수로 24년 10개월을 복역했다. 재판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씨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공소 내용을 꼼꼼히 살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애초 범행을 자백했다가 번복함으로써 판단을 어렵게 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아쉬운 대목이 적잖다.

대표적인 공소사실의 골자는 수면제 30알을 탄 양주를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는 혐의였다. 재심 재판부는 "수면제 30알을 양주 2잔에 댔다면 농도가 매우 진했을 것인데 이를 피해자가 그냥

두 얼굴의 법원

마셨을지 의문"이라며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에서 는 것처럼 많은 양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배척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간단히 공소사실이 깨진 셈이다. 각종 증거들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입수한 점이 인정돼 증거에서 배제됐다. 재심 법원이 배척한 위법증거는 원심부터 대법원까지 그대로 인정돼 김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권석천이 '두 얼굴의 법원'에서 소개한 현실은 더 암울하다. '대법관 0순위'에 앉았던 유해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로 누설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는 기소되자마자 형사소송법 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가 위헌인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썼다. "잠 부끄럽고 어리석게도 몹소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보고 나서야 현행법과 형법, 형사 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무죄추정, 증거재판주의, 피의사실 공표 처벌 등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정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저는 이번엔 이런 수사가 정말 불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법관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당하면서 검찰의 조서가 얼마나 경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토로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고 나서야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법관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들에게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지금도 이런 판사들이 재판정에 앉아 있지 않을까 두렵다.

김두식의 '법률가들'에는 '평범한 판사 유병진'이라는 대목이 있다. 유 판사는 '비상사태 하의 범죄 사실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자들을 심리한다. 1950년 9·28 서울 수복 후 북한군에 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이다. 함남 함주 출신이었던 유 판사는 서울에서 인민군을 피해 극절 끝에 부산까지 피란했다. 재판정에서 피고인을 마주한 그는 "내가 만약 서울에 남아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자문한다. 그는 재판관의 양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피란 경험에서 나온 신념을 토대로 유 판사는 처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피고인들에게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 앞에 평등' 선언 그쳐선 안돼

검찰이 1994년 부산에서 발생한 강주영양 유괴 살인 사건 피의자 네 명을 기소했다. 청와대는 약령 높은 '지존파' 사건 여파가 가시기 전에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했다며 경찰관들을 치하했다. 안기부에서 재판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로 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상에 눈이 먼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진실을 은폐하지 못했다. 부산지법 형사부 재판장이던 박태범 부장판사는 피고인 4명 중 3명이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는 호소에 귀를 기울인다. 검찰은 두 명에 대한 신체 검사를 했으나 아무런 상처가 없다는 부산구치소의 검사 결과를 내세워 반박한다. 그럼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은 박태범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불러놓고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증을 실시했다. 이들이 바짓단을 걷어 올리자 사건 발생 40일이 지나는데도 고문의 흔적이 여전히 선명했다. 나는 이런 판사가 그립다.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나 누구나 재판정에 서게 될 수 있다. 재판정에 선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처지는 달라도 소망은 같다. 헌법에 새겨진 '법 앞에 평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판사가 양심에 따라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줄 것이라는 기대다. 부디 우직하게 헌법에 명시된 소임에 복무하는 법관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은편칼럼



강대석 시인

지난 9일 채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군 검찰로부터 3년 구형을 받고 재판을 받던 박정훈 대령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정당한 업무처리를 하고도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 한 순간에 사건이 뒤집혀 피의자가 된 박대령에게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억울한 박대령을 위해 응원하던 수많은 해병대 선후배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처럼 대통령의 2년6개월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끊이지 않았던 무속논란, 거친 언행,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는 그가 명문대를 나온 검찰 총장 출신이었는지 믿기지 않았다. 오직하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누가 빨깃을 하면 "니가 윤석열이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처음 그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자 토론회에 세 차례나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왔을 때 국민들은 그를 다시 봤어야 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TV-토론회에 대선 후보자가 손바닥에 '王'자를 쓰고 나온다는 것은

반면교사가 된 대통령

간과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며 그를 믿어주었다. 그가 당선되어 맨 처음 한 일은 대통령직무실용 용산으로 옮긴 일이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통령실과 관계 이전사업을 타당성 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두 달 만에 똑딱 밀어붙였다. 국민과의 소통이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명태군과 천궁 등 무속인의 입김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약할 일이었다. 무속논란은 취임 후에도 영국여왕이 서거했을 때 농장 조문으로 다시 이어졌고, 심지어 의대증원 2000명에도 개그 같은 뒷말이 무성했다.

그의 거친 언행도 말쑥이었다. 대선 후보자 댄 신발을 신은 채 열차의자에 발을 올려놓았고 취임 후 미국 방문 댄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켜 방송사와 기자를 고발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니 총선 직전에는 정적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입찰막 하여 들어냄으로써 투쟁정권을 연성케 했다.

일방적 친일정책도 문제였다. 이순타니인 일본과의 관계를 우호 증진하자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뉴라이트 사관에 젖어 흥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육군사관학교에서 들어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일본 정부를 대면하듯 반대 여론을 억압하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하는 등 일방적 굴욕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는 이미 보수정권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족쇄였다. 주기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명품백 수수 사건, 공천개입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명태군이 검찰에 출두하며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윤 정권은 무너진다"는 말이 그냥 업포가 아니었다. 명태군의 황금폰은 그것을 증명하듯 계속 열리고 있다.

그의 사고는 70년대 중반에서 멈춘 것 같았다. 군사 독재 시절에나 들었던 종북, 반국가세력, 주사파 등의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대선에서 0.73%의 차이로 겨우 이겼으면 천행(天幸)으로 생각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협치를 했어야 했다. 국민이 총선에서 선택한 여소야대의 의미는 독주하지 말고 협치하라는 의미였다. 다시 말해 독재를 못하도록 견제하라는 의미가 더 컸다. 그러나 여소야대 구도가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극우 유투버의 선동에 빠져 판을 뒤엎기 위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선포했으니 정말 '윤석열'스럽다. 협치와 포용으로 풀 수 있는 정치적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결국 권좌까지 잃게 되는 비극을 자초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외에도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은 상대방에겐 기혹할 정도로 엄격하고 자신과 가족에겐 더없이 관대한 것이었다.

지금도 측근들이 모두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에서 혼자만 정당성을 주장하는 적반하장 태도는 한국정치사에서 두고두고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새해목표, 작심삼일 그치더라도 계획은 세우자

친다는 것이다. 작심삼일은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사실 작심삼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감히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세게 먹어도 그 마음가짐이 사흘을 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레 포기하는 것도 마음이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새해목표, 매년 거창하게 마음먹었지만 작심삼일에 그쳤다면 올해는 'SMART하게' 세워보는 것을 추천한다. SMART는 목표달성기법 중 하나로 영문 첫 글자를 따서 'S.M.A.R.T.'라고 흔히 불린다. 즉, 목표는 Specific(구체적이고), Measurable(측정 가능하며), Attainable(실천 가능하고), Realistic(현실성 있고), Time limited(기한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보다는 '3년 전 날씬했을 때 입었던 청바지 다시 입기'가 '영여 정확하

기 보다는 '매일 영어회화 1시간 이상 공부하기'가 더욱 좋은 새해목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책을 많이 읽어야지' 보다는 '매월 책 한 권 읽어야지' 가 더 낫고 '매일 자기개발서 20페이지 읽어야지'와 같이 연간, 반기, 분기보다 월, 주, 일 단위로 목표를 작게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물론 SMART한 목표 설정이 전부는 아니다. 한 해 동안 꾸준히 목표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작심삼일에 그칠지언정 새해 목표를 새롭게 세워보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작심삼일도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될 수 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고 다시 또 시도하고 또 포기하기를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정착된다는 말이다. 새해다. 작심삼일에 그칠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보자. 시작이 반이다.

社說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지금이라도 없애야

아니나 다를까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무안공항을 포함해 전국에 7곳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지지시설로 설치한 콘크리트 둔덕 등이 항공기 충돌시 대형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달중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신속히 관련 시설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도교통부는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조사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시 쉽게 부러지지 않는 시설물 9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중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확인된 공항은 총 4곳이었다. 여수 공항의 둔덕이 4m로 가장 높았으며 포항경주공항·무안공항 2m, 광주공

항은 1.5m 수준이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각 2개씩 설치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사고 규명에 가장 중요한 블랙박스 운용에도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번 참사 여객기에는 전력 공급 중단(셋다운)에 대비해 블랙박스가 전력을 공급할, 일종의 '보조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아 항공기 충돌 전 마지막 4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국내에서 운항중인 같은 기종의 절반 이상에 보조배터리가 없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시설과 관련해 이달중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컬라이저 시설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연내 개선 완료 목표라는 발표는 너무나 한가하게 들린다.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즉시 시설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놀러가는 지방의회 해외 출장 차단 당연하다

'동네 일꾼', '마을 봉사자'를 자처하던 지방의회 의원들이 언제부터인가 주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회 단상에서 공무원을 호통치거나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고 심지어 사업권을 따내는 데 열중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이다. 이같이 제사보다는 잣대에 관심을 두는 의원들이 늘면서 당연히 겸손보다는 대접받으려는 자세가 강해졌다.

결국 공무와 개인사에 대한 구별도 약해지면서 예산을 의정 활동이 아닌 개인 용도로 쓰거나 해외 연수도 공부가 아닌 단순 외유성으로 다녀오는 의원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광주시의회는 항공운임료를 수백만원이나 과다 지급했으며 전남도의회는 예산으로 개인 먹거리나 물품을 사고 심지어 화투·포커 카드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차단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공무원 국외 출장을 떠날 경우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원출장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원회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즉 주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게 됐다. 출장 후 결과에 대한 심의 평가도 한층 강화한다.

해외 연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의 복지와 자치구 운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마땅하다.

無等鼓

매년 연말이면 다가올 새해를 앞두고 소비 심리를 전망하는 트렌드가 발표된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김난도 교수가 연구원들과 함께 펴내는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서다. 소비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 트렌드까지 포괄된다. '트렌드 코리아 2009'를 시작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5'까지 17년차를 맞은 이 책은 연말이면 어김없이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트렌드 코리아'에는 한 해를 이끌어 갈 10가지 키워드가 제시된다. 지 키워드가 제시된다.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소비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 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올해도 역시나 '윤니보어', '포깅경제', '그라데이션K', '물성매력', '원포인트업' 등 낯선 용어들이 등장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었으니, 바로 '아보하'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말로 특별한 순간보다는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특정하게 놀랄 일도, 특별하게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의 하루는 누구나 바라는 일상일지 모른다. 2025년 한해는 모두가 보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보통의 하루가 뭐 대수로운가 싶지만 비상경영에 탄핵, 항공기 참사까지 이어진

현실을 마주하니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아주 보통의 하루들이 모여 행복이 됩니다." 제목에 이끌려 들어가 본 어느 블로거의 글.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1월초 일주일간의 일상을 소소하게 적어놓았다. 퇴근길에 군고구마를 사먹었고, 1인 가구임에도 장바구니에 담은 식재료가 어느새 10만원을 훌쩍 넘겼으며, 구내식당에서 먹은 맛있는 점심과 일주일 내내 야근에 시달린 일과 일상의 기록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한 문장에 공감의 하트를 눌러본다. "너무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그냥 보통의, 무난한, 평온한 일상이 주는 힘. 그 힘을 올해도 믿어보기를 한다."

특별하게 놀랄 일도, 특별하게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의 하루는 누구나 바라는 일상일지 모른다. 2025년 한해는 모두가 보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보통의 하루가 뭐 대수로운가 싶지만 비상경영에 탄핵, 항공기 참사까지 이어진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기고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나라 안팎의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예년처럼 마냥 들뜬 분위기는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도 새해는 새해다.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나름대로의 목표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올해는 무조건 담배를 끊겠어', '올해는 기필코 다이아드에 성공해야지',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 '영어를 반드시 정복하고 말테야' 같은 것들도 좋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다. 항상 새해를 맞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오래가길 바라지만 '작심삼일'에 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